



자유문 PC버전

天賜洪福



자유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버전

하늘이 내린 큰 복 | 2022년 4월 7일 제131호

진상을 알아 길상을 연다

www.minghui.org

파리 코로나 감염자 3명, 진심으로 진언 염해 구원되다

글/ 명후이 기자 더룽(德龙) 프랑스 파리 보도

베트남계 투이 안(Thuy Anh)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다. 2020년 봄 신종 코로나가 파리에서 확산할 때 그의 고모와 세입자, 그리고 삼촌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투이 안은 파룬궁을 수련한 지 1년밖에 안됐다. 아래는 투이 안이 기자에게 이 세 사람이 성심으로 '9자진언(九字真言)'을 염해 구원된 과정이다.

코로나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고모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제일 먼저 회복된 사람은 고모인 응우옌 티 홍 응옥(Nguyen Thi Hong Ngoc)이다.

2020년 3월 말 프랑스와 베트남에 사는 우리 가족은 애타게 전화를 걸어 고모의 안부를 물었다. 파리에 사는 78세 고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으며 일주일 넘게 고열에 시달린 고모는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모의 병간호를 하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리홍쯔 사부님(파룬궁 창시인)의 설법 녹음을 보내 고모에게 들려드리라고 했다. 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9자진언을 읽어드리라고 했다.

사촌 동생에게 이것이 고모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모에게 직접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라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다가 고모가 또 혼수상태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기로 결심한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다. 전화 연결이 되자 의식



을 조금 회복한 고모가 뜻밖에도 전화를 받으셨다.

나는 큰 소리로 알려드렸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부님 설법을 들으면서 편히 쉬세요." 전화에서 고모의 가냘픈 "응"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튿날 오전 고모의 신종 코로나 증상이 사라졌다. 고모는 뜻밖에도 내게 전화를 걸어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모는 "예전에 너희들이 《전법륜(轉法輪)》을 보라고 계속 권했으나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꼭

보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며칠 후 고모는 퇴원했다.

고모는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으며 격리가 끝나면 단체 연공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진언을 소리 내 읽고 빠르게 회복하다

두 번째는 우리 집 세입자 응우옌 퉁(Nguyen Tong)이다.

2020년 4월 어느 날 세입자인 응우옌 퉁 씨가 허약한 소리로 전화를 걸어 욕실 벽에 난 구멍을 막아달라고 했다.

▶ 2면에서 계속

▶ 1면에 이어서

그는 거기서 들어온 찬 공기로 인해 병이 났다고 했다. 나는 바로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 구멍은 통풍 환기구였고 밖에는 바람막이 날개가 있어 이 구멍 때문에 병이 날 수는 없었다.

침실에 들어가 보니 응우옌 통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양털모자에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마치 곰 인형 같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열이 나자 난방을 최대까지 올려 침실이 찜통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몸이 허약함을 느껴 응급 전화를 걸어 구조대가 왔으며 그들이 주는 해열제를 먹었으나 열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열이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돌보면서 나의 수련 이야기를 들려줬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을 때 새해를 맞아 베트남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시면서 젊어보이고 예뻐졌다고 했어요.”

오후 5시에 나는 그의 집에서 나왔다. 떠나기 전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적어주면서 나아질 수 있으니 계속 염하라고 당부했다.

이튿날 점심, 나는 프랑스어 《전법륜》을 들고 다시 응우옌 통의 집에 갔다. 침실에 들어가니 방안의 온도가 덥지 않았다. 차분하게 침대에 누워 이불 하나는 한쪽에 제쳐놓고 다른 하나로 가슴에 덮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아 생수와 음식을 사 왔다고 했다.

나는 매우 놀라며 “정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그 추워서 떨던 ‘곰 인형’이 맞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밤새 내가 적어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었으며 이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약간의 각혈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

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으라고 했다!

응우옌 통의 몸은 점점 좋아졌다. 병원에 입원한 이튿날 신종 코로나 증상이 다 사라져 더는 열도 나지 않고 각혈도 하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전화로 내게 출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도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으며 격리가 풀리면 나에게서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을 배울 준비를 했다.

삼촌이 친구에게 진언을 선사하다

세 번째 사람은 삼촌의 친구 응우옌 투 타이(Nguyen TuThai) 씨다.

우리 대가족 중에 20여 명이 파룬궁을 수련한다. 평소 우리는 수련하지 않은 가족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특히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이 9자진언이 생명을 구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올해 79세인 삼촌도 이 9자진언을 알고 있다.

2020년 4월 파리의 전염병 확산은 매우 심했다. 어느 날 삼촌이 전화를 걸어 후두암에 걸린 친구 응우옌 투 타이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삼촌은 친구를 살리고 싶다며 9자진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9자진언 내용을 알고 있는 삼촌이 다시 한 번 부탁한 이유는, 파룬따파 제자의 입으로 말한 아홉 글자에 자비로운장과 에너지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읽어드렸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읽으면 효과가 있음을 그 친구에게 알려드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응우옌 투 타이 씨가 삼촌에게 전화로 많이 나왔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틀 뒤 응우옌 투 타이 씨 신종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자 병원은 그의 귀가를 허락했다.

**선한 마음에
복(福)이 따른다**

글/ 안평(安平)



청나라 말 민국시기의 기인 위역(魏穢)은 첫 과거시험에서 낙방했지만, 한 가지 일에서 마음을 바꿔 3년 후 과거에 급제해 운명을 개변했다.

그는 광서제 8년에 가을 시험 준비를 했다. 당시 관상을 잘 보는 광문(廣文)이 위역의 관상을 보고 과거급제는 희망이 없다며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해 가을 시험에서 위역은 정말로 낙방했다.

위역은 의기소침해져 방랑하며 술로 울적함을 달랬다. 치씨 성의 한 노부인은 이 모습이 눈에 거슬려 누차 그의 험담을 했고 이에 위역은 매우 화가 났다.

어느 날 밤 위역은 화약을 들고 노부인 집에 가서 집을 불태우려 했다. 그러나 치씨부인 집주변이 모두 널빤지로 지은 집인 것을 보게 된 위역은 탄식했다.

“노부인은 비록 밋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옥석구분 없이 강그리 타버리게 할 수 없다.”

3년 후 위역이 다시 응시하면서 또 광문과 만났는데, 그는 놀라 말했다. “관상이 바뀌고 횡액도 제거돼 곧 과거 급제할 것입니다. 어떤 선행을 했는지요?”

위역이 마음을 돌려 가난한 집을 불태우지 않은 일을 말하자, 광문은 말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 적잖은 생명이 다치지 않았기에 명(命)이 바뀌었구려.”

그 해 위역은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경험은 “사람 마음이 선(善)에서 출발하면 아직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길신(吉神)이 뒤따른다.”는 옛사람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선념(善念)과 악념(惡念)은 일념지차나 하늘과 땅 차이이며 신이 사람 마음을 본다는 말은 사실이다!

바이러스를 뿌려도 그들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신종 코로나 전염성은 매우 강하나 일부 밀접 접촉자는 아무렇지 않다. 올해 2월 초 영국에서 발표한 실험결과를 더욱 놀랍다. 직접 바이러스를 뿌렸으나 일부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중국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역병에 눈이 있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적 바이러스 감염 실험

36명이 영국에서 진행한 ‘인체도전실험’에 자원했고 피험자의 코에 같은 양의 신종 코로나를 뿌렸다.

절반의 피험자에게서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위력을 발휘해 4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에서 양성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18명 피험자는 직접 바이러스를 뿌려어도 감염되지 않았다.

왜 백신을 맞은 적도 감염된 적도 없는데 신종 코로나에 저항력이 있을까? 연구자는 이것이 미래 연구에서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역병에서 생존자

어쩌면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역사 속 역병 생존자로부터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541년에 폭발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에서 2500만 명이 사망했다. 사서에, 감염자 사이에 거주하며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와도 접촉했으나 전혀 감염되지 않은 이도 있다. 가족을 모두 잃었기에 스스로 사망자를 포옹했으나 여전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고 나온다.

중국 고서에도 적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어 송나라 대신 관사인(管師仁)이 어느 해 초하루 아침 일찍 문을 나섰다. 갑자기 거대한 여귀(厲鬼) 몇을 만났다. 관사인이 무슨 일인지 묻자 귀신이 말했다. “우리는 여귀(疫



鬼)로 새해 첫날을 맞아 인간세상에 온 역을 퍼뜨리러 왔다.”고 했다. 관사인이 “우리 집에도 있습니까?”라고 묻자 여귀는 “없다”고 말했다.

관사인이 이유를 묻자 여귀는 조상 3대가 덕을 쌓고 악행을 멈춰 선을 행하면 그 집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그해 온역이 유행할 때 일가족이 무사했다. 관사인은 현명한 신하로 복건성과 절강성 재직 때 백성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 사람들은 그 덕을 받들어 생사당을 세웠다.

역병을 피하는 비결:

마음을 다해 9자진언을 염하다

밍후이왕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환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여 회복된 진실한 사례를 보도해왔다.

한 예로, 우한의 80세 리(李) 노인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이미 폐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 4면에서 계속

기적 바이러스가 나를 비껴갔다

[중국 투고] 나는 은행원이다. 현에 전염병 확산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은행 측에서 한 남자 동료와 함께 현 병원에 구조 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는 현 병원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 사이 남자 동료에게 발열, 기침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는 현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며칠 만에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었다.

남자 동료는 나보다 젊고 건장했다. 상식적이라면 나같이 연약한 여자가

감염돼야 했다. 설령 그가 먼저 감염됐더라도 업무 관계로 밀접접촉자는 나였으니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14일간 자택격리 후 핵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사장님이나 동료 모두 내가 명줄이 길다고 했다.

나는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대법을 26년 수련해오면서, 가족 모두 대법을 믿고 진상(真相) 호신부(護身符)도 일 년 내내 갖고 다녔기에 겁난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

수만명이 법선에 올라 상서로움을 체험하다

글/ 명후이 기자 쑨보(孙柏)·쑤룽(苏蓉)
대만 가오슝 보도



대만 파룬궁 수련생이 제작한 대형 법선(法船) 등불이 밤빛 속에서 눈부신 금빛을 발했다. 6층 높이의 법선은 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22년 대만 대보름 등불 축제가 가오슝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대만 파룬따파 학회는 거대한 행사를 돕기 위해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층 높이의 대형 '법선' 등불을 제작했다. 등불은 2월 1일~28일 가오슝 강산공원에 전시됐다.

아직 방역조치 제한이 있으나 민중들의 흥은 여전했으며 가족끼리 등불축제를 즐겼다. 많은 공무원, 사업주, 유명 지역 인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법선에 올라 전통적인 등불 예술의 문화 내포를 체험하면서 하늘이 평안과 복을 내려줄 것을 기원했다. 또, 축제의 마지막 3일간 대만 전염병 형세도 누그러들어 수만명 민중이 잇따라 찾아왔다. 파룬따파 마칭밴드 천국악단과 요고대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입법위원 린다이화(林岱桦)가 말했다. "법선 등불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념이 펼쳐져 빛이 났는데 아주 특색있습니다. 게다가 천국악단의 진감하는 우렁찬 연주와 친근한 요고대의 표현으로 이곳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했습니다."

'법선'이 대만 등불 축제에 전시된 것은 올해로 13년째로 디자이너 장이중(庄逸中)이 설명했다. "법선 완성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배 밑바닥의 12개 큰 연꽃 화판이 돛에 달린 9개 파룬을 부각시켰습니다. 파룬은 시계 방향으로 아홉 번, 반 시계 방향으로 아홉 번 회전합니다. 세 개 돛대 진선인(真·善·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밤빛 속에서 더욱 금빛찬란합니다. 법선 옆에 '신구천차(神駒天车)',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 2개 등불이 설치됐습니다. 24시간 의무(义务)로 연공을 가르쳐 민중들이 파룬궁을 진일보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연합병원 장홍타이(张宏泰) 전 원장이 말했다. "파룬따파 법선 등불이 매우 웅장합니다. 돛에 있는 9개 파룬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빛과 즐거움을 발산해 평화롭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줍니다." 그는 법선에 오르면 그 경지가 느껴지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가 더 체감된다고 했다.

현재 대만에는 수십만명이 파룬따파 수련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교수, 의사, 기업가, 변호사, 판사 등 사회 엘리

트가 적잖다. 1천여 개 연공점이 전국에 분포돼 파룬궁의 고요하고 상화로운 아침 연공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은 매년 5천명에서 6천명 규모의 파룬따파 수련 심득교류회를 개최하며 대형 인각활동도 진행한다.

같은 한부의 법을 수련하고 《전법륜》 책을 배우나, 대만 파룬궁 수련생과 중국 파룬궁 수련생이 처한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로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 3면에 이어서

친지들이 그의 상황을 알고는 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전해보라고 알려주었다. 7일 후 노인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퇴원했으며 후유증도 없었다.

'정기(正氣)가 안에 있으면 사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9자진언을 묵념하면 우주 바른 신(正神)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철저히 해체할 수 있다.